

현상설계, 다시 한 번 생각하자

A Reconsideration on Design Competitions

허정도 / 서진종합건축사사무소
by Heo Jeong-Do

젊은 건축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건축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의 꿈은 역시 품나는 건축가로 사는 것이다.

건축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지금 삼십대 후반 밖에 안되는 그 역시 지나간 짧지 않은 시간동안 허기진 듯 건축을 해왔고 낱밤 새우기를 밥먹듯 했다.

시골에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분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실무를 더 익힌 후에야 소박하고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조그맣게 자기 사무실을 냈다. 사무실을 낸 후 그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말 그대로 피 터지게 했으며 약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IMF라고 하는 괴물이 찾아 온 지 몇달 후 미래를 이야기하며 밤샘을 강요했던 직원들을 그만두게 했을 때의 참담함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폐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폐업을 하면 지역건축사회에서 약간의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빚과 급료 등을 정리하는데 보태야겠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건축은 확신이 중요하다며 자기 직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젊은 건축가는 이렇게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성실했고 꿈이 있었으며 진지하였다. 그리고 건축을 사랑했고 건축을 알았다. 실로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가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건축을 해볼 수 없는 이 젊은 건축가'는 얼마전 모처에서 개최한 현상공모전에 출품하기로 하고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 외는 더 이상 건축을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금의 현상설계는 대체로 20부 가량의 설계설명서와 다시 20부 가량의 도면집을 만들고 채색한 조감도 한 장과 A1규격의 패널 4~5매, 그리고 모형 한 점 등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최측에 따라 모형이 빠질 수도 있고 도면집을 설계설명서에 합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물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면 모양새도 나고 심사하기도 약간 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쟁할 만한 수준의 패널제작을 각 설계사무실에서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 만약 한다고 해도 그 질이 낮아 제출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것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무실은 패널제작을 외주준다. 아니 서울에 있는 그 어딘가에 맡긴다. 비용이 6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일주일 혹은 그이상 소요되는 작업기간 동안 설계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장기간 있어야 하거나와 조감도를 비롯한 그외의 책자 만드는 비용, 그리고 계획과정에서 소요되는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다.

이 젊은 건축가는 한가닥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하여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출했으나 또 탈락하고 말았다. 얼마 후 또 다시 이 지역에서 현상설계가 공고되었으나 이 젊은 건축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돈을 마련할 길이 없고 설령 마련한다고 해도 값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누가 이 젊은 건축가에게 '그런 형편에 하긴 뭐하러 해' 라고 쉽게 매도할 수 있는가.

자,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들이 얼마나 우스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일이 없어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대체로 이삼십군데의 사무실에서 마지막까지 작업하여 계획안을 제출한다.

쉽게 계산해 보자, 한 사무실당 직간접비를 평균 천만원만 잡아도 2억내지 3억이라는 비용이 소모된다. 당선된 사람조차 본설계 후 받을 수 있는 설계비가 2억 정도인데 말이다.

아주 능력이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계획안의 중요한 내용이 두세번 반복되어 표현된다. 도면집에, 설명서에, 다시 패널에...

조감도나 투시도는 시점의 위치나 현란한 색채, 과장된 표현 등으로 눈을 현혹시킨다.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명암의 강약과 산뜻한 구름과 부드러운 배경이 작품의 질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정말 이 나라 건축가들은 정직하게 그린 도면과 설명서만으로는 자기의 작품을 충분히, 그리고 수준있게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는가?

과연 이 나라 대학의 건축과 교수들은 설계도면과 설명서만으로는 계획안의 질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건축을 잘 모르는 주최측의 무지함 때문인가?

채색을 하고 입면도에 구름이 흐르고, 확연히 구분되는 세련된 명암이 있어야만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몇몇 선진국에서처럼 흑백 설계설명서 한 권에 기본 설계를 모두 담아도 도면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설명을 위한 약간의 그림들은 좋다. 그리고 정해진 룰에 의한 흑백 엑소노메트릭 한 두장이면 얼마든지 작가는 자기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심사위원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이성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개적으로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선작과 입상권 내에 든 작품은 패널이든, 조감도든, 모형이든 아니 그 이상이라도 비용 부담하려 할 것이다.

작품내용에 투여하는 시간을 봐도 그렇다. 한 달 내지 두달 정도 시일을 주는 소규모의 현상공모는 현실적으로 전체 시일을 사용하지 않고 이삼십일 가량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계획하는 시간과 표현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든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짓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는 나와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 한 명이 패널표현 작업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던 말 한마디와 필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현상설계의 현실에 대해 푸념을 하자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애가 '계획한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표현이 실제 건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는 반문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건축적인 일을 건축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써 대신하니. 스무살밖에 안되는 애도 알 수 있는 일을.

이런 풍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능력있는 신인들이 현상공모를 통해 등용되어야 하는데 원천봉쇄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가, 별다른 스폰서나 가진 게 없이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당선될 확률도 결코 높지 않고 게다가 비용

도 천만원이 넘게 드는데 누가 그런 무모한 짓을 시작하려 하겠는가?

근대 건축의 발전은 대규모 국제박람회와 현상공모전에서이다. 하지만 비약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속성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상공모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원천봉쇄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건축가들이 폭넓게 발굴될 수 있겠는가.

또다시 어떤 이들은 '그만한 비용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안하면 될 게 아니냐'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못하는 이유가 건축 본연의 것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건축과 관계없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해야 할 현상공모라는 제도가 균등하게 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내용이 중요하니 자기 형편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알아서 내용에 따라 심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그렇게 조감도의 색상 하나와 패널의 구성과 패널에 박힌 글자의 도안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심사위원도 사람인 이상 '보기 좋은 떡이 먹기 또한 좋다' 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실 예로 올 봄에 모 대학 건축과에 다니는 한 가난한 학생에게 학교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과제제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것도 표현은 제출자 임의로 하라고 할 경우 몇 만원이란 돈이 부딪집 자녀 한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학생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될 것이다. 당장에 그 대학에서는 교수 회의를 통해 과제제출물의 소재 제한을 결정하긴 했으나 씹쓸하긴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건축 아닌 것을 가지고 건축인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돈 때문에 포기한 이 젊은 건축가가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더군다나 일이 없어서 황당해하는 수많은 뜻있는 건축가들에게 현상공모라고 하는 흥미롭고 진취적인 건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림도 아닌 어설피른 그림으로 평가받는 건축이, 이제부터는 정녕 건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나는 지금 막 어느 현상설계를 마쳤다.

두명의 직원이, 겨우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성과물을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막 나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